



보도 자료

즉시 배포 가능

2026년 8월 24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믿음: 프랭클린 그래함, 10개국 21명의 연사와 아시아·태평양 복음화 총회 개최

아시아·태평양 지역 50여 개국의 교회 지도자들이 담대하고 성경적인 복음 선포를 향해 영적 도전과 사명을 새로이 할 기회가 마련되다

정확히 1년 후, 빌리그래함 전도협회가 주최하는 아시아·태평양 복음화 총회가 호주 시드니에서 열린다.

빌리그래함 전도협회(BGEA)의 대표 겸 CEO이자 이번 총회의 위원장인 프랭클린 그래함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세계 인구의 대부분이 살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어 보지 못한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은 곳으로서 이 지역 교회에는 지금이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다는 기쁜 소식을 모든 세대에게 전하기 위해 해당 지역의 복음 전도자들을 한자리에 모으고자 합니다."

2027년 8월 24~26일 시드니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 복음화 총회에는 2,400여 명의 기독교 지도자들이 모일 것으로 예상되며, 호주, 아시아, 뉴질랜드, 유럽, 미국, 캐나다, 중동, 아프리카에서 온 21명의 연사와 기여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로마서 1장 16절을 주제로 하여 10개 언어로 사흘간 말씀을 전할 예정이다.

대한민국 서울에 위치한 여의도순복음교회의 담임 목사이자 이번 총회의 주요 연사인 이영훈 목사는 "많은 신앙인이 믿음 안에서 고립감을 느끼는 요즘, 아시아·태평양 복음화 총회 같은 행사를 통해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다음 세대 선교에 대한 사명을 새로이 다질 수 있을 것입니다. 세속화와 영적 무관심이란 도전 속에서도 복음은 새로운 세대와 국가에 닿을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번 총회가 성도들을 격려하고 이 지역 전체에 복음 전도 열정을 다시 불타오르게 만들 것이라 확신합니다."라고 말했다.

역시 이번 총회의 주요 연사를 맡은 호주 브리즈번의 퀸즐랜드 신학교 총장 게리 밀러 박사도 다음과 같이 말했다. "주 예수님의 복음을 모든 국가와 세대에 전해야 한다는 책무는 무겁고 버겁지만 결코 피할 수 없습니다. 이 사명을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면 우리에게 서로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아시아·태평양 복음화 총회는 우리가 속한 세상을 그리스도께 인도하기 위해 복음을 중심에 둘 수 있도록 서로를 격려하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아시아·태평양 복음화 총회에서는 그래미 3회 수상자 마이클 W. 스미스와 여러 아티스트들의 특별 찬양이 있을 예정이다.

모든 참가자의 식사와 숙소는 BGEA에서 제공한다. 이번 총회는 초청받은 사람만 참여할 수 있으며 등록비는 무료다. 자세한 내용은 SydneyCongress.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연사 및 기여자 명단

- 미국 | 프랭클린 그래함 목사, 빌리그래함전도협회 및 사마리안퍼스 대표 겸 CEO
- 호주 | 카니시카 라펠 대주교, 호주 성공회 시드니 교구 대교구장
- 대한민국 | 이영훈 목사, 철학 박사, 여의도순복음교회 담임 목사
- 싱가포르 | 에드먼드 찬 목사, 의도적 제자 훈련 교회 세계 연합 창립자 겸 리더십 멘토
- 타이완 | 제임스 허드슨 테일러 4세 목사 겸 박사, 중국 복음주의 신학교 총장 겸 OMF 인터내셔널 회장
- 미국 | 시시 그래함 린치, 강연자 겸 '피어리스' 진행자
- 브루나이 | 피터 친 목사, 박사, 동남아시아 AG 연합회 서기, 브루나이 하나님의 성회 총회장
- 뉴질랜드 | 로버트 시아키모투 박사, 오픈 에어 캠페인 전도사 겸 폴리네시아 선교회 공동 창립자
- 미국 | 마크 M. 야브러 박사, 댈러스 신학교 총장
- 캐나다 | 찰스 프라이스 목사, 더 피플스 처치 전도사 겸 무임 목사

- 호주 | 게리 밀러 박사, 퀸즐랜드 신학교 총장 겸 복음 연합 호주 공동 창립자
- 미국 | 월 그래함 목사, 빌리그래함 전도협회 전도사 겸 부회장
- 이란/영국 | 라신 수드만드, 토치 선교회 공동 창립자, 글로벌 저술가 겸 강연자
- 호주 | 글렌 데이비스 대주교, 호주 성공회 남십자성 교구장
- 미국 | 스킵 하이지그 박사, 뉴멕시코 앨버커키 갈보리 채플 담임 목사
- 영국 | 크리스 싱킨슨 박사, 램스다운 교회 부목사 겸 제자 훈련원 원장
- 호주 | 마거릿 코트, 마거릿 코트 선교회 창립자 겸 전 여자 테니스 세계 랭킹 1위
- 미국 | 그레그 로리 목사, 하비스트 크리스천 펠로십 교회 전도사 겸 담임 목사
- 남수단 | 제임스 라고스 알렉산더 감독, 아프리카 내지 교회 총회 감독
- 호주 | 미셸 피어스, 호주 기독교 로비 CEO
- 미국 | 데이비드 브루스 박사, 빌리 그래함의 전 비서실장 겸 빌리 그래함 아카이브 연구 센터 부회장

-끝-

언론인 안내 사항

취재 지원

- 보도 자료에서 사진 및 영상을 다운로드하고, 이번 총회에 참가하는 국가 및 지역 목록을 확인하려면 다음 링크를 방문하세요: Media.BillyGraham.org/Asian-Pacific-Congress-on-Evangelism
- 언론인분들의 총회 참석을 환영합니다. 개최 장소는 인터내셔널 컨벤션 센터 시드니(ICC 시드니)이며 주소는 뉴사우스웨일스주 시드니 달링가 14번지(우편번호 2000)입니다.
- 언론인의 신청 및 참가비는 무료이며, 식사도 무료로 제공됩니다.
- 취재 신청 및 기타 문의는 media@billygraham.org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빌리그래함 전도협회의 아시아·태평양 복음화 역사

빌리 그래함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깊은 애정과 관심이 있었고, 35차례 집회를 개최해 1,300만 명 이상에게 복음을 전했으며 1973년 대한민국 서울에서 5일간 열렸던 역사적인 집회에서는 300만 명 이상이 참석해 역대 최대 규모를 달성했다. 1959년 호주 시드니에서는 약 98만 명의 인파가 경기장을 가득 메우며 시드니에서 가장 많은 관중 수를 기록했다. 해당 투어 기간 동안 그래함은

호주와 뉴질랜드 전역의 11개 도시를 방문했고 33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의 설교를 듣기 위해 집회에 참석했으며 14만 6,000명 이상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로 결심했다.

빌리 그레함의 아들 프랭클린 그레함은 지난 33년간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41차례 복음을 전했고, 최근 캄보디아, 베트남, 라오스에 초청받아 연단에 섰을 때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복음에 응답했다. 2027년에는 베트남 하노이에서 설교할 예정이다.

프랭클린 그레함의 아들 윌 그레함 역시 이들 국가의 사역에 열정을 품고 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30차례 이상 전도 집회를 개최했으며, 2026년 5월에는 일본 시코쿠와 대한민국 의정부에서 설교했다.

빌리그레함 신속대응 팀은 위기 대응 훈련을 받은 사역자들로 구성되었으며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40회 이상 파견돼 2011년 일본 센다이 지진, 2014년 필리핀 세부 태풍, 2026년 일본 구마모토 지진 같은 재난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심적, 영적 위로를 제공했다.

빌리그레함 전도협회의 인터넷 전도 프로젝트인 SearchforJesus.net은 지금까지 1억 명 이상의 세계인들과 만났으며 매년 아시아·태평양 지역 사람 수십만 명과 복음을 나누고 있다.

빌리그레함 전도협회에 관하여

빌리 그레함이 1950년에 설립한 빌리그레함 전도협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 세계로 전파하고 있다.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에 본부를 둔 빌리그레함 전도협회는 프랭클린 그레함과 윌 그레함이 이끄는 대규모 집회, 빌리그레함 도서관, 24시간 빌리그레함 기도 핫라인, 빌리그레함 신속대응 팀, 노스캐롤라이나주 애슈빌 외곽에 위치한 더 코브 빌리그레함 훈련 센터, 수천 명에게 온라인으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인터넷 전도 프로젝트 SearchforJesus.net 등 다양한 국내외 사역을 운영하고 있으며, 인쇄물, TV, 전화, 라디오, 인터넷으로도 많은 이들에게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더 많은 정보는 BillyGraham.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A MINISTRY OF
**BILLY
GRAHAM**
Evangelistic Association
Always Good News.